



1회용 컵 사용 확~ 줄었다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81% 이상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 광주지역 환경시민단체도 '1회용품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

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의 성과를 조사해 취합한 것이다.

21개 브랜드는 던킨도너츠·스타벅스·엔제리너스·이디야커피·커피빈엔터프라이즈·투썸플레이스·파스쿠찌·할리스커피 등 16개 커피전문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파파이스 등 5개 패스트푸드점이다.

21개 브랜드 업체들은 모두 협약 내용대로 손님에게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쉽도록 1회용 컵 재질을 단일화했다.

지난해 8월 수도권 지역의 1000여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81% 이상 매장에서 다

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매장 내 1회용 컵 수거량도 지난해 7월 206t에서 올해 4월 58t으로 72% 줄었다. 업체별로 개인 컵을 사용할 경우 100~4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지난 1년간 제공한 할인 혜택 건수는 1023만 7888건으로, 할인 가격은 29억 4045만원에 달한다.

스타벅스는 플라스틱을 대체해서 종이로 만든 빨대를 도입했고, 엔제리너스·스타벅스·던킨도너츠·베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 등에서는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을 도입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21개 브랜드의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7년 7억 137만개에서 2018년 6억

7729만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자발적 협약업체 총 매장 수가 9138곳에서 1만 360곳으로 1222곳 늘었는데도 오히려 일회용 컵 사용량은 2408만개 줄었다.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을 기준으로 2017년 7만 6376개에서 2018년 6만 5376개로 14.4%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환경시민단체들도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철제 컵 등 행사용 다회용품 무료대여를 추진했고, 광주지역 대학생들도 테이크 아웃용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없애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제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앞으로 21개 브랜드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도 자발적 협약 참여 의사를 확인해 협약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해 폐기물 대란을 겪으며 국민 사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생활 습관이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환경시민단체들도 '일회용품 안쓰기' 캠페인과 협약식을 진행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2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지

스웨덴 '환경 지킴이' 소녀 국제엠네스티 '양심대사상'

스웨덴의 '환경 지킴이 소녀'인 그레타 툰베리(16)와 그가 이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forFuture)' 운동이 국제엠네스티 양심대사상을 수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툰베리는 지난해 8월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기후 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첫 1인 시위를 시작했고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호소에 공감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세계 각지에서 매주 금요일에 등교를 거부하고 거리에 나와 동조 시위를 벌였다.

국제엠네스티는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파키스탄의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에게도 인권 증진에 노력한 공로를 기려 양심대사상을 수여한 바 있다.

툰베리는 수상 소감에서 "여러분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며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두가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을 이끄는 소녀 그레타 툰베리.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맞서 싸워야 하는 지독한 불의는 지구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데 가장 작은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받을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환경시민단체 "영산강 보 해체하라"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 회원들이 최근 승촌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촌보·죽산보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영산강 재자연화와 보 해체를 요구하는 광주·전남 환경시민단체는 "막힌 물길을 뚫고 강을 흐르게 해 장어·황복이 돌아오는 영산강 재자연화가 나서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2009년 6월 8일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 승촌보·죽산보 해체 촉구 물길 뚫어 장어·황복이 돌아오는 영산강 되살리기 나서야

부터 정확히 10년째를 맞은 지난 8일 승촌보 앞에서 보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인 반대

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며 "해마다 반복하는 극심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강 바닥에 쌓이는 오니가 4대강 사업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뀐 뒤에야 국민여론을 수렴한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가 채택됐다"며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 방안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기획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14일까지 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 역량강화 교육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4일까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4층 세미나실에서 2019년 '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精度管理)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도관리는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검사 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을 말한다.

현재 국내 모든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측정분석 능력 및 정도관리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협력해 민간 기관의 측정분석 및 정도관리 능력 향상을 위

해 지난 2015년부터 광주지역 환경측정대행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민간 시험·검사기관 측정대행업소 12개소 등 분석업무 담당 기술인력 4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향상 방안, 환경분석 측정 불확도 이해, 환경측정분석사 실습(유기물·수질·대기·실내공기질 분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박정훈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 환경검사기관의 측정분석 업무 숙련도 향상과 지역 환경검사기관의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필리핀에서 반송된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 완료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당진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의 처리가 마무리됐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폐기물 4666t(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 3394t(컨테이너 142대)과 수출이 보류된 1272t(컨테이너 53대 분량) 등 총 4666t(컨테이너 195대)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었다.

처리비용으로 약 10억여 원의 비용이 투입돼, 평택시는 폐기물 조치 명령 불이행에 따라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 투자 !
(주)오천과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상담문의. 최선규 H.010-3605-5000